

---

# 체육교과 진화에 관한 생태학적 조망

## Ecological Viewpoint of Evolution in Physical Education

---

김재운, 이주욱  
경인교육대학교

Chae-Woon Kim(cwkim1@ginue.ac.kr), Joo-Wook Yi(joowookyi@naver.com)

---

### 요약

본 연구는 체육교과 진화에 관해 생태학적으로 조망해 보고 논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모색해보았다. 교육과정을 토대로 체육교과의 진화를 조망한 이유는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체육교육의 목표, 가치, 체육교육의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타나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교사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교과에서 진술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운동을 단순히 기능 혹은 운동신경 수준이 아닌 가드너가 제시한 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체육교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체육교과 필수 지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체육교과 | 진화 | 생태학적 조망 | 교육과정 |

###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review and discuss the evolu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terms of ecological viewpoint.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try to look for the meanings through the 2007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he reason that I look for the meanings from the curriculum is because the curriculum includes objectives, values and philosophical backgrounds in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e following results. Governmental active supports to reinforce roles of in-service teachers should be emphasized. Second, teacher should focus on Game strategies for Physical Education. Third, mental function for activities in Physical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lligence as one of H. Gardner's multiple intelligences rather than they are just accepted as the level of functions or a motor nerves. Fourth, Physical Education for 11 and 12 grades should be accepted as a requirement to mainta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high school as a normalization process.

■ keyword : | Ecological Viewpoint | Evolution | 2007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

---

## 1. 서론

생태학(ecology)은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

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만들어 낸 독일의 생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른스트 헤켈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학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유기체가 둘

접수번호 : #090204-002

접수일자 : 2009년 02월 04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09일

교신저자 : 김재운, e-mail : cwkim1@ginue.ac.kr

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 및 다른 유기체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생존과 적응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18].

원래는 생물 생태학이 생태학을 총칭하는 것이었으나, 이런 개념이 점차 다른 영역으로도 번역·전이 되어, 인문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생태학의 개념을 차용하여 새로운 설명 모델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총체적 인식론이나 관계적 세계관, 탈 자기중심적 가치관 등은 생태학적 문화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9].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어느 하나도 서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육교과의 미래 변화를 조망해 볼 때에도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으로 이해가 필요하다. 체육교과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교과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환경과 어떻게 적응하고 조절하는지를 통찰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관계 속에서 존재할 것이다.

즉, 체육교과가 환경에 적응하고 조절하는 것은 체육교과를 둘러싼 사회적 수요, 문화적 환경 등과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생겨난다. 체육교과가 단순히 기능과 체력이라는 고정된 의미로 있다면 그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박인기[10]는 교과의 존재와 생존을 위해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 교과가 각양의 학문, 지식,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생태적 조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개변되어 가는 것을 ‘진화’로 보는 것을 강조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자연선택’은 특정 자연환경이 적합한 개체 혹은 집단을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적합성이 가장 높은 개체나 집단을 자연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과를 생태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체육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조건들과 잘 적응하여 적합성과 선택되는가 하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진화가 요구된다. 진화(evolution)는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발달하여 간다”는 의미이고, 생물체일 경우에는 “생물이 외계(外界)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하여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하등(下等)한 것에서 고등(高等)한 것으로 발전하는 일”이다[3]. 생태적 관점에서 교과를 해석

할 때 진화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변화(change)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변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달라짐, 바뀔의 단순한 의미로 기술하기보다는 발달 혹은 발전을 전제로 하는 진화를 통해서 교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진화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진화이론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발달해 간다는 진화의 의미이다. 즉 체육교과를 유기체적 현상으로 보고, 교과가 자신을 둘러싼 각양의 생태학적 여건과 더불어 동화와 조절을 부단히 해 나가는 어떤 주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체육교과는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접근을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진화는 사회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체육교과는 사회적 수요에 대해 적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체육교과의 위상, 사회적 인식, 체육수업의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체육은 수업시간 및 환경적 제약으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주당 2-3시간이 체육 수업 시수로 배정되어 있으나 시험기간, 장마, 황사, 폭우, 폭서, 혹한, 자외선 주의보 등의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수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진화해야 할 체육 시설은 문화재처럼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녹슨 철봉, 그물 없는 농구 골대, 물이 고이는 운동장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IT 시설을 확충하느라 운동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체육수업을 위한 수업시간과 환경적 조건은 진화라고 하기보다는 답보 혹은 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웰빙, 삶의 질 향상은 현대사회를 읽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만큼 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비해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주변교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체육교과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그 중요성은 주지교과에 치우쳐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체육교과는 어떠한 진화를 하고 있는가?”이다. 물론 이 질문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의 과정이지만,

2007년 제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적 배경과 특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체육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고자 한다. 특히, 진화는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중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뉴스포츠(new-sports)의 의미를 진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핵심인 체육 교육 목표의 변화, 가치중심으로의 전환, 철학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과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을 진화의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과 체육교과의 과제, 그리고 이 대한 전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반적 이해

2007년 제 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부분 개정이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체제와 구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정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수시 개정 하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개정작업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21]. 체육교과의 경우는 부분 개정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전면 개정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체육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들[6][1][4][13][15][16]은 교사교육과정과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제 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커다란 변화를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007년 제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교육 철학의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철학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4]. 그것은 체력중심에 대한 체육수업의 반성과 기능 중심의 체육수업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체력중심 교육은 체육 교과의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와 필요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도 담보할 수 없었다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능 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체육교육이 가치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평생 체육 활동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체육인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가치의 달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의 목표가 스포츠 기술 중심이었다면, 2007년 제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생활로의 전이를 강조한 것으로서 체육교과의 가치를 진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체육교과를 통해 건강한 삶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고,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혜택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삶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는 2007년 제 7차 수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인 신체 활동 가치에는 건강(health), 도전(challenge), 경쟁(competition), 표현(expression), 여가(leisure)활동의 5가지 가치로 일원화하였다. 여기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간의 교육내용 계열성을 강조하며 학년 간에도 교육내용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체계를 선정하였다. 학년 간 교육내용의 계열성은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신체활동 이해력과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였고, 각 학년 내용에서 동일한 개념이나 운동능력 등을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반복성을 줄이고 계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재조직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신체활동을 수행할 때 해당 신체활동에 관한 이론 또는 지식과 태도를 함께 배우도록 내용을 통합했으며, 스포츠의 인문 사회적 내용과 예술적 내용의 강화를 통해 교육내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교수-학습방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

운영과 신체활동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활동, 그리고 적합한 교수방법의 선택을 강조했다. 체육교과의 경우 외부환경, 지역성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 이러한 분권화, 지역화,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은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정구조로 평가하고 있다[11]. 평가의 측면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 종목이나 비율을 삭제하였으며,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교 혹은 현장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의거하여 결정, 고시하며, 초·중등학교에서의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및 기본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상위 수준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개념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개별 학교 현장을 고려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17]. 특히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담아 내야하는 유일한 교과이다. 신체활동은 개인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외부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체육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해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요구를 담보할 수 없지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의 자율권 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어쩌면 신체활동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교사에 대해 실질적인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장의 교사가 체감하는 자율성의 정도와 질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실천자”로서의 역할과 “교육과정의 개발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III.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

진화의 측면에서 2007년 제 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

정의 큰 흐름을 보면 서두에 설명하였듯이 첫째, 신체 를 위한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체육교과의 기능중심 또는 체력중심에 대한 반성에 기반한 개정이다. 둘째,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가치 중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요자(학습자)중심으로의 변화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진화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 기능중심(체력중심)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

우리 사회에서 체육 교과의 정당성은 건강 증진, 체력강화, 운동 기능 등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서 찾으려고 했다. 사실 현재까지도 이 목표로 체육교과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목표에 대한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체육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해 졌는가?”, “학생들의 체력이 강화되었는가?”, “학생들의 운동기능은 향상 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면 반론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체력과 비만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어떤 여학생은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을 통해서 배운 기능은 “피구와 발야구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비단 체육교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목도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반문을 한다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체육교과의 발전을 전제로 한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하려면 더 이상 체력과 운동기능향상 이라는 목표로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환경적 제약과 부족한 수업시수,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는 기존의 체육교육의 단일한 목표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삶으로의 전이를 강조한다. 최근의 다른 국가들의 체육교육과정 문서나 그에 관한 연구에서도 건강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 국한하여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개인적 차원의 웰빙이나 웰니스, 신체 및 전신 건강을 지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17]. 이러한 가치와 혜택을 학교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체력 및 운동 기능 향상만이 체육교과의 목적이나 역할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체력 및 운동 기능의 습득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다면 입시위주의 현실 속에서 체육교과의 위상은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체육수업이 정규수업이 아니라, 방과 후 활동이나 주말, 방학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생활체육 시설 혹은 스포츠 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체육교과의 지향점은 체력 및 운동 기능 중심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체력과 운동기능 뿐 아니라,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성취감, 리더십, 예절, 사회적 책임감, 자기통제 등의 경험을 했을 것이다[17]. 하지만, 체력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러한 가치들이 아주 적은 부분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체육교과가 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체육교과의 목표가 스포츠 기술의 습득 이었다면,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다양성과 참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제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뉴스포츠(new sports)를 도입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참여의 즐거움과 체험에 목표를 두고, 기능중심의 체육교육 목표를 다양한 가치들 중에 하나로 상대화 시킨다. 더불어 뉴스포츠의 도입은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다양화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의 체육수업이 근대스포츠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특히 뉴스포츠의 “참여지향”의 목표는 체육수업에서의 소외현상을 최소화하고, 남성중심의 체육수업에서 양성중심으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뉴스포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체접촉과 높은 기술이 요구

되는 전통적인 종목의 리드 업(lead-up)게임, 다양한 게임 활동의 체험, 기능이 낮은 학생과 같은 소외 학생의 최소화, 혼성학급 수업의 대안 등이다[8]. 류태호[8]는 목표차원에서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상에서 참여를 통한 즐거움을,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남성지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양성지향 프로그램으로, 교수방법 측면에서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 측면에서는 수행이나 규칙의 준수로부터 학습, 그리고 규칙의 변형과 합의를 뉴스포츠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뉴스포츠가 학교 교육에서 다차원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체육교과는 신체활동, 또는 그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행 교육과정 구성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운동경기 종목이나 체육 종목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교과가 과연 기능 중심, 체력 중심의 교과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지속적인 반성이 있어 왔다[19][23][22]. 이러한 반성은 심신일원론을 주장하고, 체육활동의 인지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5].

이에 2007년 제 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적 의지는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신 및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신체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기능이나 체력중심에서 벗어나 삶으로 전이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목표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쟁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획일화된 종목중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의 진화 : 신체활동가치의 의미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스포츠 기능중심 교육과정 (sport skill-based curriculum)

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physical activity value-based curriculum)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가치 중심은 바람직한 평생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설정일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을 보면, 신체 활동의 가치는 스포츠, 운동, 무용 등을 포함한 모든 신체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치를 말한다.

신체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 신체 활동이 가지는 가치(value)를 달성하기 위함임을 강조한다. 신체 활동 가치에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가 포함 된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이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17]. 첫 번째 대영역인 건강 활동은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건강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며 개인 및 사회의 건강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두 번째 대영역인 도전 활동은 도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개인의 신체적 수월성이나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도전 활동은 개인의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현재 직면한 장애 요인과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대영역인 경쟁 활동은 경쟁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게임 또는 스포츠 경기 상황에 존재하는 상호 경쟁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쟁 활동은 집단 간 경쟁을 전제로 경쟁에 필요한 경기 수행 능력과 다양한 인지 전략을 익히는 단체 활동으로, 팀원 간 협동심과 리더십, 스포츠맨십 등이 사회적 가치 덕목을 중시한다. 네 번째 대영역인 표현 활동은 표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생각과 느낌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말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 대영역인 여가 활동은 여가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체 활동중심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며 바람직한 여가 문화

를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즉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신체활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평생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적 인간상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5가지만이 체육교과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종목 자체가 아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 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체육교과에서 축구나 농구라는 종목자체가 체육교과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한 것이다. 종목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 철학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가의 가치를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한 여가 향유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 욕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주 5일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생활체육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도박이나 향락사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여가교육에 대한 빈곤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여가에 대한 것을 체육이 전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를 반영했다는 것에도 진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 5일제 근로 환경과 주 5일제 수업이 체육과 교육에는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가의 증가로 여가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학교의 수업 시간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인지 교과에 대한 시수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학교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적 통로로서 소통하고 체육교과가 자기 조절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여가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배우고, 체육교과를 통한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육교과의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는 다양한 가치

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역동적인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체육교과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V.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천 방안

현행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을 보면, 내용 체계의 영역 분류가 초등학교 3-4학년은 4개 영역(체조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보건), 5-6학년은 6개 영역(육상활동, 체력활동 추가), 7-10학년은 8개 영역(체조, 육상,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무용, 체력운동, 이론, 보건)으로 구성되었다. 구성형식은 전 단계의 영역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영역이 분화되거나 추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과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교육 내용 요소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운동 영역에 대한 설정 근거가 경험적 사실들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영역 설정은 학교 현장 체육교육에서 지도 가능한 영역이라 할 지라도 교육 내용의 양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저해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17].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단일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체육과 목표를 가치 중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지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계열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축구를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에서는 농구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배구를 하는 방식으로 체육교과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위상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체육과 교육의 방향을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중학교 체육과 교육, 그리고 선택 과목과 연계되는 고등학교 1학년의 체육교육으로 나누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활동 가치의 기초교육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학교는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고등학

교 1학년은 체육과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과의 다리 역할을 하므로 “신체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안목과 실천 능력 개발을 강조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의 체육과 선택 과목 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 평생 체육활동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5].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에서 구체적인 수업활동은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교사의 역할은 주로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국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현장에 반영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것보다 교사의 재구성 혹은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된다. 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이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학년, 학급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 제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기준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이고 표준화된 내용이 된다. 이것을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체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3, 4, 5, 6학년)은 게임, 무용 등을 중심으로 신체 활동 가치의 기초 교육을 담당한다.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과 태도 형성, 운동 기초 능력과 표현력 향상, 바람직한 운동 질서 및 규범 형성, 활동적인 여가 활동의 생활화에 초점을 둔다.

특히, 경쟁활동을 보면 특정 종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중심게임모형에서 강조하는 전술을 토대로 피하기형 경쟁,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으로 구분하여 전략과 전술을 익히는 단체 활동 위주의 수업을 중시한다. 특히 뉴스포츠(new-sports)

를 도입하여,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다양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지향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술은 체육교육의 인지적 영역 중 중요한 요소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치이다.

더불어, 교육으로서의 체육을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한다면, 체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완전하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하여 좀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체육이 인간의 발달에 공헌하는 것은 운동발달을 통한 가치의 획득이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많은 철학적 고민과 교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들어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실천성에 대해 직접 고민해보고자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과 진화를 위한 제언으로서 첫째, 현장교사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많은 연구에서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교사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장성만이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역할에 대한 비중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의 집필에도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의 실천가, 교육과정의 개발자로서의 교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

정이 아니면 문서상으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체육교과에서 전술이 강조되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이해중심게임수업에서 강조하는 전술은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 게임의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블을 할 것인가, 빈 공간에 있는 같은 팀원에서 패스할 것인가, 누구에게 패스할 것인가, 슈트를 할 것인가, 빈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의 복잡한 상황은 전술적 지식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이 간과된다면 축구를 할 경우, 공 주위로만 물리는 “벌떼 현상”이 일어나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게 된다.

셋째, 체육교과에 대한 전술의 문제와 결부되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단순히 “기능(skill)” 혹은 “운동신경(motor nerve)수준”이 아닌 가드너가 제시한 “지능(intelligence)”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육교과의 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드너가 처음 제시한 인간의 지능은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여덟 번째 지능인 자연친화지능, 실존지능을 제시하고 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한국의 획일화된 교육을 반성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말 할 수 있다.

가드너는 테니스를 치는 순간 백핸드로 칠 것인지, 포핸드로 칠 것인지를 판단하고, 볼의 속도와 회전, 반발 등을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계산해야 하는 것은 지능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현재의 문화가 지능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다수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을 통해 IQ 점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을 잘 하는 것은 “운동신경이 좋은데... 혹은 순발력이 뛰어나다” 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운동은 곧 지능이라는 다양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체육교과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체육교과 필수 지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총체적 입장에서 어렵기는 하겠



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필수교과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 체육교육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성 측면에서는 주지교과에 비해 차선(次善)으로 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TV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것처럼 “체육은 필수과목이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체육교과가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모색해 보았다. 생명의 진화는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교과가 유기체로서 진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가치와 목표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더불어 체육교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진화를 위한 다양성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신복, “체육과 교육과정의 국제 동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주최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22, 2005.  
 [2] [http:// www.nest.go.kr](http://www.nest.go.kr)  
 [3] [http://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4] 김명수,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정립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5.  
 [5] 김미숙,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의 분석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6, No.2, pp.39-54, 2008.  
 [6] 김대진, “중등체육교사양성 교육과정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15, No.1, pp.21-37, 2008.  
 [7] 류태호,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과교육공동연구학술세미나 발표집, 한국 교원대학교 부설교과 교육공동연구소, pp.625-636, 2002.  
 [8] 류태호,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12, No.2, pp.91-108, 2005.

[9] 박이문,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진화”, 서울:당대, 1996.  
 [10] 박인기, “교과의 생태학, 그리고 교과학의 진화”, 경인교육대학교 미간행 학술 자료집, 2008.  
 [11] 박재정, “초등 체육 교과서 내용 분석과 새 교육과정에서의 체육 교과서 개발 방향”, 초등교과교육연구, 8, pp.47-70, 2008.  
 [12] 서지영, 유정애, 김현정, “체육과 교유목표 및 내용 체계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3-7, 2003.  
 [13] 안양옥, “통합적 재검토를 통한 초등체육과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11, No.2, pp.1-23, 2004.  
 [14] 안양옥, “신체활동 가치중심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소고”, 우리체육, 창간호 자료집, 2008.  
 [15] 유정애,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실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4-3, 2004.  
 [16] 유정애, 서지영, 조미혜, 최의창, “체육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자료, CRC 2004-4-9, 2004.  
 [17] 유정애,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대한미디어, 2007.  
 [18] 장연자, “미술교육의 생태학적 접근 방향”, 미술교육논총, Vol.20, No.2, pp.87-112, 2006.  
 [19] 장용규, 김홍식, “기능 중심 스포츠 교육의 한계와 대안 모색”, 체육연구소논집, Vol.19, No.1, 1998.  
 [20] 조미혜, 김윤희, 서지영,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체육교육과정 변천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4, No.1, pp.1-16, 1997.  
 [21] 허경철, “차기 초·중등 교육과정의 체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사이언스맨 혹은 르네상스 맨”, 2004 한국 스포츠교육학회 춘계세미나 자료집, pp.15-33, 2005.  
 [22] D. R. Anedrson, “The Humanity of movement or it’s not just a gym class,” Quest, 54, pp.87-96, 2002.  
 [23] C. Corbin, “Physical activity for everyone:

what every physical educator should know about promoting lifelong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1, pp.128-144, 2002.

[24] W. Carr and S. Kemmis, "Becoming Critical :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Geelong:Deakin University Press, 1986.

[25] D. Hellison, "Teaching responsibility through physical activity," Champaign, IL:Human Kinetics, 2003.

저 자 소 개

김 재 윤(Chae-Woo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 사회학, 여가 및 레저스포츠

이 주 욱(Joo-Wook Yi)

정회원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체육교육